



김백준
만두속

패터슨 시의 패터슨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 <패터슨>은 좀 특이합니다. 특별히 갈등이나 사건이 없어요.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의 영화 버전처럼, 영화는 시간 순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패터슨 시(市)에 사는 패터슨은 오래된 버스를 모는 버스기사입니다. 머핀을 잘 굽고 쌍둥이를 낳길 원하며 컨트리 가수가 꿈인 매력갑 아내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죠. 영화는 그런 패터슨 내외의 평이한 일주일을 보여주는 것이 다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습습하게 말이죠.

패터슨의 루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상 후 손목시계로 시간 확인 - 아내가 짜준 도시락 들고 출근 - (*)버스 운전석에서 대기 - (*)운동 - 퇴근 후 아내와 대화 & 소일거리(*) - 기르는 볼독과 함께 산책 - 산책의 마지막에는 바bar에서 맥주 한 잔.

영화 전체를 제가 방금 스포했습니다. 이게 다냐고 물으시면... 아, 패터슨은 종종, 그리고 자주. (*)표가 된 시점에 노트에 자작시를 쓰거나 작성된 시를 읊습니다. 네, 이 영화의 특이점은 시(詩)입니다. 패터슨은 버스 기사이면서 시인이예요.

엔드 게임처럼 강렬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극한 직업 같이 찰진 대사도 없는 심심한 이 영화. 근데 보다보면 이게 묘하게 빠져들입니다. 패터슨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나름의 굴곡이 보이거든요.

마치, 파파존스에 절여져 있던 입맛이 방풍나물의 오묘한 식감을 알게 된 순간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천천히 영화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시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과 행으로 구성된 시처럼, 패터슨의 일주일은 시. 각 요일(DAY)은

연. 하루에 있었던 일은 행이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짐 자무쉬 감독이 영화를 하나의 시처럼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이란 약 내 삶의 감독이라면 나의 일주일은 그의 시가 되겠구나, 란 생각을요. '김백준의 일주일'이라는 시는 패터슨의 일주일처럼 하나의 영화와 같겠구나.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작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웹툰 대본을 포함해 (이 글을 포함)잡다한 글들을 쓰는 저는 제가 지은 것에 대한 애착을 알고 있습니다. 제 창작물 하나 하나는 저에게 각각의 의미로 소중해요. 조심스럽고, 은밀하며, 고심을 함께 나눴고, 대견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시는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친구 or 아내와 한 대화, 아이들에게 보내는 미소, 문득 든 생각 한 귀퉁이, 일터에서의 노력들. 우리의 자잘한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행과 연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패터슨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글을 맺으려 합니다. (패터슨의 시는 시인 '론 페드젯'이 감독의 요청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흥미로운 행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거든요. 배화성도님들도 오늘 어떤 '삶 시' 쓰셨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 Poem

난 집 안에 있다 I'm in the house
바깥 날씨가 좋다, 포근하다 It's nice out Warm
차가운 눈 위의 햇살 Sun on cold snow
봄의 첫날 First day of spring
혹은 겨울의 마지막 Or last day of winter

나의 다리는
계단을 뛰어올라 My legs run up the stairs
문밖으로 달리고 And out the door
나의 상반신은
여기서 시를 쓰네 My top half here writing

배화교회

주보 제 2019-18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5.12

부활절 제 4주 아버지주일/스승의주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회 중: 하나님이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다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온땅은 주님의 성소 + 온땅의 주인 /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대표기도 송윤경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창세기 47장 13-19절

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7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8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요셉이 지키지 못한 신앙

찬양과 기도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71명
헌금	십 일 조 서민욱 이아름 이동근 이은미 감사헌금 김기택 김예현 김재홍 김선민 문지혜 서광희 송민혜 윤서진 배성경 감사헌금 강영건 강정우 김백준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은철 김재홍 김선민 김택운 김택현 문지혜 박세연 박소영 박 준 박진성 서민욱 이아름 서하광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윤영미 이기순 이병홍 임주하 조진철 주영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허경식 함은혜 무 병 목적헌금 성임숙(일천번제)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전교인수련회 수련회는 25일(토)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수련회비는 성인 3만원, 유치부-중등부 1만원입니다. (기업은행 626-049634-01-017 예금주: 조휘)

영화감상 오늘 속회시간에 <천로역정>을 감상합니다. 1시20분까지 캠패일로 모여주세요.

속회안내 새로운 속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속회 교재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속장님께 신청해주세요. (팀 켈리의 '복음과 삶' / 할인가 1만원)

1속	만두속	만두소처럼 다양한 속원들이 만두피같은 주의 은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된다. 김백준* 김용석 유재연 송윤경 김미소 문지혜 조영남 정유민 서광희 홍병진
2속	이복삶	이속은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 되는 속 송민천* 허경식 함은혜 서민욱 이아름 이은미 김종민 홍성희 강영건
3속	복세평살	복잡한 세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나아가자 노준영* 김우리 김수현 임가는 박세연 김예현 박재성 장은유 김영석
4속	전복시	전지적복음시점 한호철* 조진영 권태성 최정용 추세영 임경훈 주 영 김은철 성임숙 송민혜
5속	계속	하나님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자 최민성* 윤영미 김재홍 김선민 정우석 태미선 조진철 박소영 윤서진 배성경
6속	BTS	Baewha To Seek, Baewha To Speak, Baewha to Study 최미사* 조 휘 김미연 김지운 김승주 김영서 윤희선 심도연 강나영 박진성

배식 및 정리 오늘은 2속(이복삶), 다음 주는 3속(복세평살)입니다.

* 대표기도

5.19	유재연 집사
5.26	이아름 집사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기도실
- * 홈페이지 : www.baewhach.kr
- * 유튜브, 인스타 : 배화교회